“코로나19 극복 위해 모두 힘 모아야”

■ 이강영 의장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에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면서 건강한 생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구의회는 코로나 피해 확산에 대비해 두 번의 긴급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집행부의 활동을 지원하며,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남구 조직개편안, 남구사랑상품권 등 중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초당적인 협치 정신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전 직원은 방역 활동, 마스크 배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감염예방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고, 전 구민께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도 대한민국은 앞선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고 확진자 감소를 이끌며 5월 초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틈을 타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순간의 방심으로 수 개월간의 땀과 눈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남구 공무원 여러분! 기존에 더한 과중한 업무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민 삶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으로 끝까지 힘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곧 있을 조직 개편이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고, 주민들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남구사랑상품권 등 주요 사업들이 적시적소에 추진되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구의회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 등 가결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5월 6일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5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2019년 5월 9일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다.

1, 2차 본회의시 3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원안가결)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의원 발의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남구의회 운영 관련 조례와 아동의 권리 존중, 보육 관련 조례 제·개정이 있었다.

서성부 의원(대표발의) 외 3명의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성부 의원

허미향 의원

김철현 의원

박구슬 의원

서성부 의원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허미향 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 일부개정
김철현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구슬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

허미향 의원(대표발의) 외 2명의 의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변경으로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를 신설’하였다.

김철현 의원(대표발의) 외 12명의 의원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아동참여기구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추진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구슬 의원은 10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돌봄아동의 범위 확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활동경비 지원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례안들은 5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어 5월 20일 제2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남구의회는 2019년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지난 4월 24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다. 남구의회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책임검사위원에 고선화 의원, 검사위원에는 이종수 세무사, 조현진 세무사, 남용기 전 공무원, 이수완 전 공무원을 선임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6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24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5분 자유발언

서성부 의원
(대연1·4·6동)

연포초 통학용 구름다리 설치를

본 의원은 「연포초등학교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류에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위 상황에 부주의한 어린아이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확률은 더 높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이 ‘나홀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과속방지턱, CCTV 등을 설치해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량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 발생 확률은 항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인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과속방지턱, 신호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게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의 강제성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연포초등학교는 대연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2019년 3월 현 위치로 신설대체 이전 하였습니다. 市 교육청은 이전 연포초등학교 부지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 질 컨트롤 타워인 「미래교육센터」를 2021년까지 개관할 계획임을 발표 하였습니다. 연포초등학교 인근은 3,100세대의 대단지 주거지역, 미래지향적 교육거점 지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그 명성에 걸맞는 통학 인프라가 구축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레전드 입구와 초등학교 정문 5~6차선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나, 아파트 거주하는 학생 810여명은 내리막길 과속차량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세종시는 미르초등학교, 나래초등학교, 어진중학교 등 인근 아파트와 학교 간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래초등학교 구름다리의 경우는 주민 찬,반 갈등 양상이 있었으나 세종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해결 사례로까지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레전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구름다리 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구청에 지속적으로 설치요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여러 규정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로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만의 사익으로 치부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의 공익적 측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강 건 우 의원
(용호2·3·4동)

코로나19에 관한 남구청과 우리의 자세

코로나19에 관한 남구청과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백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백신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1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계 경제가 최소 1년 이상은 최악의 위기속으로 빠져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스는 우리나라에서 3명의 확진자, 메르스는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병원내 감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는 지역감염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사스와 메르스 때와는 달리 그 피해범위와 유행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향 전환을 하자 이태원클럽 사태가 터져 다시 지역감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스는 9개월, 메르스는 7개월을 유행하였습니다. 그때도 백신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지역적이라는 이유와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야 할 만큼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강한 생명력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은 백신이 꼭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 국민들은 개인위생 지키기와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남구청도 구민들에게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2차 코로나 파동에 대비하여 미리 마스크와 세정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거라 생각합니다. 그 후 포스트코로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는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륙도와 씨사이드, 평화공원을 활용한 트램 관광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륙도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해양보호구역으로, 이 기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갈맷길이 연간 최소 50만 여명이 다녀가는 곳임에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우리 남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보건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마스크 무상배부와 재난기본소득 등을 마련해주신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시는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 선 화 의원
(용호2·3·4동)

용호3동 공영주차장 주민 불편 해소를

용호3동 공영주차장은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에 42면을 조성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변은 3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 충분한 주차장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였지만 5월부터 공영주차장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되어 고질적 주차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구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잘 되었으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후 주변 정비가 부실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면서 한전주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어 도로 상부에 위치한 주민들이 한전주로 인해 차량 주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보행자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서편에도 한전주가 진입로 가운데에 위치하여 큰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한전주 이설을 요구하였지만 구청과 한전은 이전비용 부담 등 이설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두 기관의 떠넘기기로 주민들만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부담 문제는 한전주 이설 원인 제공에 따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면 이설 원인자는 도출되고, 비용부담 주체를 정하면 한전주(2주) 이설은 신속히 진행됩니다. 관계부서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합니다. 둘째, 용호3동 공영주차장 주변은 용호신익타워와 동부타워, 동보빌라맨션, 경동아파트 등 1,000여 세대 주민들의 진·출입로이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소재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최근 준공된 공영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추가되면서 기존 보도가 철거되고 보행자의 통행 위험은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인접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셋째,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시 인접 국·공유지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안, 진입지의 경사여건을 활용하여 지하부분을 주민편익시설이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방안 등 부지 활용방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제약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실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용호3동 공용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http : //council.bsnam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